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양준환*

¹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글로벌기업가창업센터

A Study of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Jun-Hwan Yang^{1*}

¹Global Entrepreneur Strat-up Center, Dankook University

요약 대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은 미래의 잠재적 기업가들인 대학생들에게 창업과 사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시켜주며 창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의 창업동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데이터분석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동기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은 창업동기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를 형성하는데 있어 유의한 매개역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ntrepreneurial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furnishes necessary knowledges and fosters competences of potential entrepreneurs and help them change their attitudes toward start-up of a new business. This study examines how entrepreneurial education affects promoting entrepreneurship and stimulating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esting mediating of entrepreneur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motivation is another aim of this study.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each hypothesis of the study. Following refers to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e study; at first, entrepreneurial education affects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positively. Secondly, entrepreneurial education influences promoting entrepreneurship of students. Thirdly, entrepreneu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significantly. Lastly, entrepreneurship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motivation of student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were provid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Key Words :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1. 서론

창업은 새로운 기업이 창립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대

체해 나가는 과정이다. 창업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창출로 이해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 활발한 창업활동은 새로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이 연구는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un-Hwan Yang(Dankook University)

Tel: +82-31-8005-3371 email: stvyang@dankook.ac.kr

Received December 23, 2014

Revised March 9, 2015

Accepted April 9, 2015

Published April 30, 2015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 2], 따라서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창업활동의 바탕에는 기업가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창업을 위해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기업가정신은 지금과 같이 높은 청년실업률과 장기적인 저성장 상황의 돌파를 위해, 그리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시키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 일관된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4].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선행연구결과는 창업활동지수(Entrepreneurial initiative indexes)가 더 크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실업률이 더 큰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5]. 반면에 창업기업가 자원이 부족했던 2001년의 경우에는 OECD성인인구 중 10% 미만만이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창업교육은 사람들의 기업가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7]. 창업교육은 사업 아이디어의 창출,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증진시켜주는 교육이다. 또한 창업교육은 예비기업가의 공급, 즉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진로선택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창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진지하게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8]. 이와 같이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의 촉진과 확산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일 자리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9].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에서 창업교육이 국가 주요정책의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10, 11].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교육 커리큘럼의 예를 보면 원광대학교는 창업실무, 창업론 등 창업관련 교과목을 교양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원광대학교 홈페이지) 숭실대학교의 경우 벤처중소학과 등을 통해 중소기업학, 기업가정신, 벤처경영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숭실대학교 홈페이지).

그러나 창업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대학생들의 창업의 사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잠재적 기업가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사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분위기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2.1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창업교육은 창업의도, 창업지식, 창업열망, 창업실현 가능성 등과 같이 창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발달시키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12]. 창업교육은 또한 사람의 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변수이기도 하다[13,14]는 창업에 필요한 여러 역량들은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들으로써 잠재기업가들의 창업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창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창업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를 제공하고 창업정신을 강화시켜 준다[15]. 따라서 미래의 기업가들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시절은 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 그리고 창업현장과 연계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16].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들로부터 창업교육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배양시켜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후천적으로 기업가적 준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창업동기(Entrepreneurial motivation)란 가능한 빨리 창업을 통해 독립하여 기업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며 지휘하고자 하는 열망 혹은 경향을 말한다

[17,18]은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에게 창업동기를 부여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도록 해주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창업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학교는 미래의 기업가들을 양성하는 잠재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은 잠재적 기업가인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태도와 동기부여, 그리고 의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상정한다.

가설1.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기업가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시간과 노력, 필요한 자금과 사업역량 등을 투입함으로써 창업을 실현시키는 사람이다. 기업가들은 이렇게 창업을 향한 기업가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자신들의 노력을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창업을 실현시켜 가는 과정은 위험, 불확실성, 압박, 스트레스, 절망 등과 같은 기업가가 직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역량의 획득뿐만 아니라 창업과정 중에 부딪히게 될 난관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 기업가들은 기업가정신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13].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특성 등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발달시킬 수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2]는 기업가정신이 후천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획득되어 질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4]도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12]는 창업교육이 사람들의 창업의지, 관련지식, 창업에 대한 열망 등 창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발달시켜 준다고 보았다. [13]은 창업교육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변수이며 기업가정신 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와 유의한 관계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창업교육은 창업동기, 정보의 탐색, 사업 아이디어의 이해가능성과 잠재적 사업으로부터의 재무적 목표 등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강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

최근 기업가정신의 증진은 대부분 국가의 중요 공공정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3]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정신의 확산은 사람들에게 창업동기를 부여하며 기업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은 혁신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효율의 달성하도록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기업가정신교육은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창업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이 사람들의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대부분 선진국의 대학교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은 예비 기업가들인 청년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촉진과 창업을 준비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19,13]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지식이 창업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창업을 하기 위한 의도를 형성시켜준다고 보았다. 크로아티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13]. 또한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한 [20]의 연구는 잠재적 창업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은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을 위해 필요한 창업동기의 형성, 사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정보의 탐색, 사업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과 잠재적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무적 목표 등 창업의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사람의 창업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 기업가정신은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
 기를 형성시키는데 있어 유의한 매개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현재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를 형성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동기를 형성시키는데 있어 유의한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매개효과검증은 3단계 위계적 다중회계분석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아래의 Fig.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은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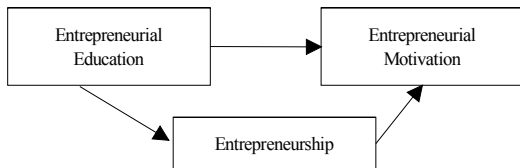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창업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교 2 곳, 경기 그리고 충남과 전북지역 대학 각각 1 곳을 선정하여 각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의 측정도구 개발은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의 설문문항들을 토대로 개발하였고 특별한 기업가정신 분야의 전문가 및 교수 두 분의 도움을 받아 구조적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 배포 시에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자신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반영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결과 원광대학교 58부, 백석대학교 60부, 홍익대학교 62부, 숭실대학교 59부, 그리고 단국대학교 58부로 총

297부를 회수하여 이 중 연구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불성실 응답지 19부를 제외한 278부를 연구에 최종 투입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문항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연구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제외하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각각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3.1 창업교육

본 연구에서 창업교육(Entrepreneurial education)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창업동기, 창업지식, 창업열망, 창업의지 등과 같이 창업활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발달시키기 위한 모든 교육으로 정의한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청년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며 창업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의 역할과 체계적인 창업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변수의 측정은 [12, 15, 18] 등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창업교육은 나에게 창업성공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준다’, ‘창업교육은 나에게 취업보다는 창업에 더 호감이 가도록 해 준다’, ‘창업교육은 나에게 창업의 욕을 강화시켜준다’ 등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3.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사업적 불확실성에 도전하며 자신이 추구하려는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계산해 본 후 결단성 있게 창업을 실행하는 정신으로 것으로 정의한다. 기업가정신은 위험에 대한 모험,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 근면함, 스트레스와 절망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 창조와 개선 등과 같은 요인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21]. 기업가정신 변수의 측정은 [21]과 [13], 그리고 [22]의 연구를 토대로 ‘나는 결단력이 있으며 인내심이 강하다’, ‘나는 기회를 추구하며 목표 지향적이다’, ‘나는 창업에 따른 모든 위험을 계산해 본 후 사업적 모험을 추구할 것이다’ 등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3.3 창업동기

창업동기(Entrepreneurial motivation)란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타인의 의존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업을 창립하고 직원들을 지휘 통제하고 싶어 하는 열망 혹은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동기는 성공적인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특성과 성공적인 경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선행연구 결과들은 높은 창업동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기업가가 될 가능성 더 크며 위험에 대한 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창업에 대하여 더 크게 동기 부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동기는 [17, 23, 24, 25] 등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창업 한다’,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창업 한다’, ‘나는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창업 한다’ 등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인 각 대학교 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omponent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86
	Female	92
University	Wongkwang	55
	Baekseok	55
	Soongsil	56
	Hongik	58
	Dankook	54
Grade	Freshmen	10
	Sophomore	73
	Junior	106
	Senior	89
Total	278	100

본 연구에 참가한 각 대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20% 수준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이 67%, 여학생이 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과 창업의 기로에 서있는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비중이 전체의 70%인 것을 보이고 있다.

4.2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분석은 PASW 18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각 변수들의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크론바하 알파값을 이용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단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업가정신의 매개변수 역할 검증을 위해 [26]이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추가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기업가정신 변수의 매개효과검증을 재확인하였다[27].

4.3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세 가지 변수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들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통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Variable	QN	Factor 1	Factor 2	Factor 3	Eigen value	Chronbach's α
Entrepr'rial motivation	EM3	.767			6.431	.780
	EM1	.747				
	EM5	.668				
	EM2	.651				
Entrepr'rial education	EE3		.720		9.891	.768
	EE5		.683			
	EE4		.675			
	EE1		.667			
	EE2		.634			
Entrepr'ship	ES2			.822	1.939	.783
	ES3			.759		
	ES1			.713		

이를 통해 고유값(eigen value)이 1보다 큰 요인들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창업교육은 다섯 문항이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창업동기는 4개 문항, 기업가정신은 3개 문항이 각각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 측정변수들의 신뢰도(reliability)은 Ch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신뢰도의 계수값은 0.7이상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별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에는 다음의 Table 2에 제시하였다.

4.4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 간의 Pearson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 and Pairwise Correlation

Variable	Mean	S.D.	Correlation		
			Entrepr'rial education	Entrepr'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Entrepr'rial education	3.587	.604	1		
Entrepr'rial motivation	3.547	.757	.275**	1	
Entrepreneurship	3.563	.660	.389**	.316**	1

** p <.001

4.5 가설검증

먼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 1의 회귀모형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 22.437, p< .001).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²값은 .075, 표준화 계수(β)값은 .275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임에 따라 창업교육이 창업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가설1의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 ²
Entrepr'rial motivation	Entrepr'rial education	.344	.073	.275	4.737**	22.437**	.075

** p <.001

가설2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회귀모형 유의성 검증결과 F값이 46.348(p< .001)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였다. R²값과 표준화 계수(β)값은 각각 .144와 .380으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가설검증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 ²
Entrepreneurship	Entrepr'rial education	.414	.061	.380	6.808**	46.348**	.144

** p <.001

다음으로 가설3은 기업가정신이 대학생들의 창업동

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회귀모형은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22.437, p< .001). R²값과 표준화 계수(β)값은 각각 .100과 .316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3의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이 정리해 두었다.

Table 6.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 ²
Entrepr'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362	.066	.316	5.523**	30.509**	.100

** p <.001

마지막으로 가설4는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사이에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Table 7. Result of Mediating Effect Analysis

Ste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1st	Entrepreneurship	Entrepr'rial education(a)	.414	.061	.380**
2nd	Entrepr'rial motivation	Entrepr'rial education(c)	.344	.073	.275**
3rd	Entrepr'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b)	.284	.070	.247**
		Entrepr'rial education(c')	.226	.076	.181**

** p <.001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변수이다.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하여 [26]가 제안한 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3단계 위계적 다중회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6]의 매개효과검증 방법은 3단계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 1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후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 영향력이 2단계에서의 영향력보다 작아야 매개효과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부분매개효과, 유의하지 않을 경우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검증단계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창업교육과 대학생들의 창업동기 사이에 기업가정신이 완전매개역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하는데 검증결과 여전히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매개효과의 크기는 $.344 - .226 = .118$ $\times .284(c \cdot c' = ab)$ 식에 따라 $.118$ 의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는 Table 7에 정리해 두었다.

기업가정신 변수의 간접효과를 추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검증을 실시하였다[27]. Sobel검증결과 기업가정신은 창업동기에 $Z = 3.482(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를 형성시키는데 있어 기업가정신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4는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의 창업동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동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해보는데 있다.

가설검증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동기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은 그들의 창업동기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사이에 유의한 부분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 첫째,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실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창업지식이 부족하고 창업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의 개발 및 창업동기를 부여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15, 18]. 따라서 실제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가정신이 후천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획득되어 질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잠재기업가들의 창업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14]. 셋째,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은 창업동기 형성과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사람들에게 창업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에 대한 지식은 창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고 창업의도를 형성시켜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3, 13]. 창업분야의 핵심적인 두 가지 변수로서 잠재적 기업가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 사이에 유의한 인과관계를 실증하여 이론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또 하나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업가정신이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사이에 유의한 부분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실증한 것이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가정신 변수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가설의 검증은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변수가 창업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동기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의 포착,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도전, 자신의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창업을 통한 자아실현 등과 같이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한 필수요소인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주며 나아가 청년 창업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만성적인 청년 실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은 창업동기 형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대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은 청년대학생들에게 창업성공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들을 공급해 줌으로써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켜 창업에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전국 다섯 곳의 대학교를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각 대학교 별 표본의 수가 충분치 않아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과 관련된 세 가지의 핵심 변수들 간 인과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은 장기적인 시간과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중요 변수만을 가지고 창업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과제로는 창업교육의 효과를 좀 더 밀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등 성 별의 차이에 따른 창업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창업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공 별, 부모창업의 창업여부 등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여 창업교육의 전반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 [2] P. Drucke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New York, Harper and Row, 1985.
- [3] S. Shane, S. Venkataraman,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pp. 217-226, 2000.
DOI: <http://dx.doi.org/10.2307/259271>
- [4] J. Mitra, Towar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policy development, In J. Potter (Ed.), *Entrepreneurship and higher education*, Paris: OEC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LEED), 2008.
- [5] D. B. Audretsch, *Entrepreneurship: Determinants and policy in a European-US comparison*, Boston: Kluwer Academy, 2002.
DOI: <http://dx.doi.org/10.1007/b109395>
- [6] A. Nolan, *Entrepreneurship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Paris; OECD. 2003.
- [7] J. Potter, *Entrepreneurship and higher education*, Paris: OEC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2008.
- [8] F. Liñan, J. C. Rodriguez-Cohard, J. M. Rueda-Cantuch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levels: a role for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Management Journal*, 7, pp. 195-218, 2011.
DOI: <http://dx.doi.org/10.1007/s11365-010-0154-z>
- [9] J. Vanevenhoven, E. Liguori,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roducing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ject",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pp. 315-328, 2013.
DOI: <http://dx.doi.org/10.1111/jsbm.12026>
- [10] A. C. Martinez, J. Levie, D. Kelley, R. Saemundsson, T. Schott,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Special report: A Global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The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GERA)*, 2010.
- [11] J. H. Lee, "A Study on the ways to Vitalize Students'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pp. 63-74. 2013.
- [12] F. Liñan, "Intention-based mode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iccola Impresa /Small Business*, 3, pp. 11-35, 2004b.
- [13] D. Bakotic, D. Kruzic, Student's Perceptions and Intentions Towards Entrepreneurship: The Empirical Findings From Croatia, *The Business Review*, Cambridge, 14(2), pp.209-215, 2010.
- [14] J. A. Timmons,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1994.
- [15] D. S. Jang, S. K. Hong, "An Empirical Study on the Venture Education Effects between Korea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7, pp. 105-124, 2001.
- [16] Z. T. Bae,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for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Management",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1(2), pp. 155-180, 1998.
- [17] B. R. Johnson,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pp. 39-54, 1990.
- [18] J. J. Chrisman, T. Hynes, S. Fraser, "Faculty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the University of Calga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4), pp.267-281, 1995.

DOI: [http://dx.doi.org/10.1016/0883-9026\(95\)00015-Z](http://dx.doi.org/10.1016/0883-9026(95)00015-Z)

- [19] P. B. Robinson, E. A. Sexton, "The effect of education and experience on self-employ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 pp. 141-157, 1994.

DOI: [http://dx.doi.org/10.1016/0883-9026\(94\)90006-X](http://dx.doi.org/10.1016/0883-9026(94)90006-X)

- [20] N. S. Yoon,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Economy*, 25(2), pp. 1537-1557, 2012.

- [21] D. Kratko,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p. 2-27, 8th Edition,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2009.

- [22] D. Miller,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pp. 770-791, 1983.

DOI: <http://dx.doi.org/10.1287/mnsc.29.7.770>

- [23] T. M. Begley, D. P. Boy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pp. 79-93, 1987.

DOI: [http://dx.doi.org/10.1016/0883-9026\(87\)90020-6](http://dx.doi.org/10.1016/0883-9026(87)90020-6)

- [24] S. Shane, E. A. Locke, C. Collins,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Review*, 13(2), pp. 257-279, 2003.

DOI: [http://dx.doi.org/10.1016/S1053-4822\(03\)00017-2](http://dx.doi.org/10.1016/S1053-4822(03)00017-2)

- [25] H. Leffel,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 for New Technology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 *PICMET 2008 Proceedings*, Cape Town, July, 2008.

- [26]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 1173- 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7]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1982.

DOI: <http://dx.doi.org/10.2307/270723>

Soongsil University(www.ssu.ac.kr), retrieved on Feb. 24, 2015 from http://www.ssu.ac.kr/web/kor/edu_a_06_03_b
Wonkwang university(<http://biz.wku.ac.kr>), retrieved on Feb. 24, 2015 from <https://intra.wonkwang.ac.kr/SWupis/V005/Service/Stud/Course/listByRange.jsp>

양 준 환(Jun-Hwan, Yang)

[정회원]



- 2009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육교수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 기업가 네트워크